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 Gender and Temperament, Husbands'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ward Toddlers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김 은 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아동학협동과정

교 수 박 성 연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 비고츠키 아동청소년상담센터

겸임교수 · 부소장 임 희 수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Student : Eun Ji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Seong Yeon Park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

Vygotsky Child Counselling Center

Adjunct Professor · Vice President : Hee Su L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VI.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Daehyun-Dong 11-1,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072 E-mail: psy@ewha.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child gender and temperament, husbands'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ward toddlers. Mothers of 214 toddl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the following variables: child temperament, husbands'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behavior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1) Children being negative emotionality linked with mothers' high controlling and rejective parenting behaviors and low responsive parenting behaviors directly and indirectly via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2) Husbands' support was linked with mothers' low controlling and rejective behaviors through mothers'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3) Mothers' low psychological well-being was linked to high mothers' controlling and rejective paren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underscor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usbands' parenting support in predicting mothers' positive parenting.

주제어(Key Words) :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s), 걸음마기 아동(toddler), 기질(temperament), 남편의 양육지
지(husbands' parenting support),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I. 서론

걸음마기는 언어, 인지, 운동 및 사회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Bornstein, 2002) 한편, 양육자인 어머니는 걸음마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자기주장적인 행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머니들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걸음마기 아동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반응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지나치게 거부적, 통제적이 되거나 또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공격적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Rohner, 1991), 과보호나 과잉통제를 하는 양육태도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가져와(Rubin & Stewart, 1996; Rubin, Cheah, & Fox, 2001) 부정적인 발달적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 반응적이고 자율성을 격려하는 양육은 아동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이나 주도성을 길러주게 된다(박주희,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발달에 미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히 발달시기상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져 양육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그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필요하다.

양육태도에 관련된 변인들 중 아동관련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과 기질이 널리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성이나 기질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우선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딸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하고 상호반응적인 관계가 더 쉽게 이루어지며(Kochanska, 1997;

Maccoby, 1990),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최지현, 2001), 남아에게는 더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곽혜경, 김압이, 장미자, 한유미, 2005; 곽혜경, 조복희, 1999; 이경님, 2001).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는 남아에게 더 반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Biringen, *et al.*, 1999; Leaper, 2002; 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한편, 아동의 성은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중요변수로서 어머니는 특히 여아에게 과보호적이라는 보고(박성연, Rubin, 2008)가 있는가 하면, 2~3세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대체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보고(안지영, 박성연, 2002)도 있다.

아동의 기질 역시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정적 또는 까다로운 기질에 관심을 두어왔다. 높은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을 보이는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로 하여금 통제적이거나 비반응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임희수, 1994; Hemphill & Sanson, 2000; Lee & Bates, 1985)반면, 순한 기질의 아동에게는 어머니가 보다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이미정, 1997; 전수연, 2002; 홍계옥, 2001; Snow, 1998). 그러나 어머니는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에게 더 반응적이고(유명희, 박성연, 1992), 더 관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Crockenberg, 1987)나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Abidin, 1990). 성 및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들은 제3의 변인으로 인한 영향이거나 또는 양육행동차원에 따른 차이 및 연구대상 아동의 성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일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박성연, Rubin, 2008). 따라서 걸음마기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성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재확인해보고자 한다.

생태학적 관점과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특성(즉, 아동의 성이나 기질)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지지되고 있다(Luster & Okagaki, 1993).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Abidin, 1992; Belsky, 1984; Belsky, Woodworth, & Crnic, 1996)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지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고 바람직한 양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고(박성연, 임희수, 2000), 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였다(Olweus, 1980).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때 어머니는 과보호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지지적인 행동을 덜하게 되는데(박성연, Rubin, 2008),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특히 아버지의 도움이나 양육참여에 의해 감소된다(Crnic & Low, 2002).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의 인성이나 부모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머니의 주관적 만족감인 심리적 복지감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유아에게 설명적 양육태도와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태도를 많이 보였다(박서영, 박성연, 2007). 더구나 이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이나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여아의 어머니는 심리적 복지감이 높으면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지만, 남아의 어머니는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또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화를 잘 내고 감정에 쉽게 좌우되는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며(박성연, 한세영, 1996), 불안한 정서를 나타내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는 아동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Dumas & LaFreniere, 1993). 위의 연구들은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 및 아동의 기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은 양육상황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낮은 심리적 복지감을 나타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들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보다는 삶의 만족감의 하위측면인 대인관계 만족감, 사회관계망 만족감, 우울 및 정서상태, 인성, 또는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박서영과 박성연(2007)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특히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은 누구에게나 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한 주요변인으로 삶의 만족감을 선정하였다. 즉,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아동의 성이나 기질, 그리고 남편의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종합해보면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걸음마기 영아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운 경우나 남편의 양육도움이 거의 없는 경우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저하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어머니의 저하된 심리적 복지감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아동의 성이나 기질 및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영아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달적으로 변화가 큰 걸음마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걸음마기 아동의 성과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걸음마기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걸음마기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걸음마기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5곳의 어린이집과 2곳의 놀이교육기관 및 7곳의 문화센터를 다니는 18개월

~36개월 걸음마기 아동의 어머니 214명이다.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109명(50.9%)과 여아 105명(49.1%)이며, 아동의 평균연령은 24.3개월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8세,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4.9세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61.2%, 아버지의 69.1%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71%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45.8%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머니들의 약 57%가 대체로 중류로 지각하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ark, Belsky, Crinic과 Putnam(1997) 및 이미정(1997)의 연구를 참조로 작성된 고은주(2003)의 통계, 과보호, 거부, 반응성에 관한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통제' (7문항)는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제한하고 간섭하며 지시하는 태도이며, '과보호' (6문항)는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고 의존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거부' (6문항)는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불만이나 비난을 표시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말하며, '반응성' (5문항)은 자녀가 나타내는 모든 형태의 신호를 잘 지각하여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신호에 적절하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양육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하위요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sim .85$ 범위였다.

2)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uss와 Plomin(1984)의 기질척도인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변안한 전수연(2002)의 척도 중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인 걸음마기 아동에 적합한 18문항만 선정,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질 척도는 사회성, 활동성, 정서성의 세 가지 요인이 포함된다. 본 척도에서 '사회성' (9문항)은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을 말하며, '활동성' (4문항)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격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정서성' (5문항)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게 내

는 특성으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성이 높을수록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게 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기질적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하위요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sim .88$ 범위였다.

3) 남편의 양육지지

남편의 양육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bidin(1988)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하위요인인 팀워크(teamwork)를 신숙재(1997)가 변안하여 수정한 척도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부모로서 잘 도와준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4)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서영(2007)이 변안하여 사용한 Ryff와 Keyes(1995)가 제작한 PWB(The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18문항과 Pavot와 Diener(1993)가 제작한 SWLS(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의 5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PWB는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각 측면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으로 지각하는 만족감의 수준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6개 하위영역인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삶의 목적, 자기수용도로 이루어져있다. SWLS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 "나는 내 삶에서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 "내 삶의 대부분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각 영역들에 대한 심리적 복지감과 함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한 심리적 복지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두 척도를 모두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총 23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8년 10월 중 약 4주간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5곳의 어린이집과 2곳의 놀이교육기관 및 7곳의 문화센터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21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기초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걸음마기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인 걸음마기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은 그 어떠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도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걸음마기 아동의 경우 아동의 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 중 사회성과 활동성 모두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덜하였다. 반면에, 정서성은 어머니의 통제 및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반응적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 반면, 반응적인 행동은 덜하였다.

그러나 남녀 아동 각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 남아의 사회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그 어느 것보다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아의 사회성,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무관하였으나, 여아의 경우는 사교적이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거부적 양육태도를 덜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서성 기질의 경우에는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남아와 여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통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여아의 경우는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반응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여아에게 어머니는 거부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한편, 반응적 양육태도는 적게 보였다. 걸음마기 남아와 여아의 기질은 그 어느 것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양육지지는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전체아동, 그리고 남녀 아동 각각의 경우 모두,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반응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내, 남편의 양육지지가 낮을수록 어머니는 아동에게 거부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였고 반응적 양육태도를 덜 나타내었다. 그러나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간의 부적인 상관은 특히 남아를 둔 어머니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나 남편의 양육지지가 낮을수록 남아에게 더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남편의

〈표 1〉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N = 214 : 남 : 109; 여 : 105)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	통제적 남	여	전체	과보호 남	여	전체	거부적 남	여	전체	반응적 남	여
아동의 성	.07	.04	.03	.01								
아동의 기질												
사회성	-.07	-.16	-.01	-.12	-.17	-.08	-.14*	-.01	-.23*	.05	-.03	.13
활동성	.02	.04	.00	-.08	-.13	-.04	-.15*	-.02	-.24*	.11	.04	.17
정서성	.30***	.39***	.25*	.05	.07	.03	.26***	.17	.32**	-.27***	-.16	-.37**
남편의 양육 지지	-.16*	-.23*	-.13	.04	.08	.01	-.31***	-.27**	-.34***	.37***	.34***	.39***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35***	-.32**	-.36***	-.04	-.02	-.05	-.38***	-.32**	-.43***	.46***	.27***	.52***

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 1 = 여
*p < .05, **p < .01, ***p < .001.

양육지지는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무관했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아동, 그리고 남녀 아동 각각의 경우 모두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통제 및 거부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그리고 반응적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아동에게 통제적 및 거부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인 반면, 반응적 양육태도를 덜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남녀 아동 모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는 무관했다.

2. 걸음마기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문제 2〉인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아동의 성 및 기질과 남편의 양육지지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어머니의 각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의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과정에서 상관관계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과보호양육행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회귀분석에 앞서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VIF값이 1.000~1.659까지 분포되고 있어 회귀분석의 실시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경우, 아동의 성, 아동의 정서성 기질,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지지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

타나 딸일 경우, 부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한편 양육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경우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반응적 양육태도에는 남편의 지지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표3〉참조).

〈표 2〉와 〈표 3〉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그 경로를 표시한 〈그림 1〉을 보면, 아동의 성 및 정서성,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의 성과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직접적으로 또

〈표 2〉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아동의 성 및 기질과 남편의 양육지지의 중다회귀분석 (N =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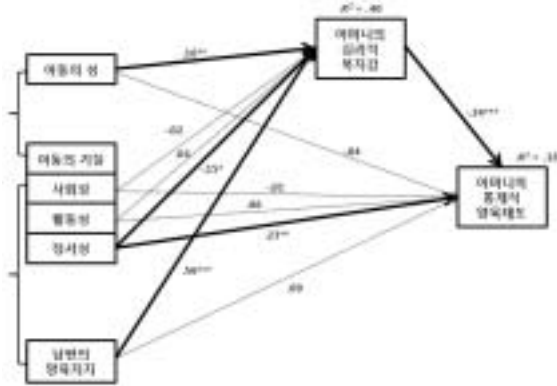
변인	심리적 복지감	
	B	β
아동의 성	.12	.16**
아동의 기질		
사회성	-.01	-.02
활동성	.02	.04
정서성	-.08	-.15*
남편의 양육지지	.37	.56****
F	27.55***	
df	5, 208	
R ²	.40	

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 1 = 여
*p < .05. **p < .01. ***p < .001.

〈표 3〉 어머니의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성 및 기질과 남편의 양육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의 중다회귀분석 (N =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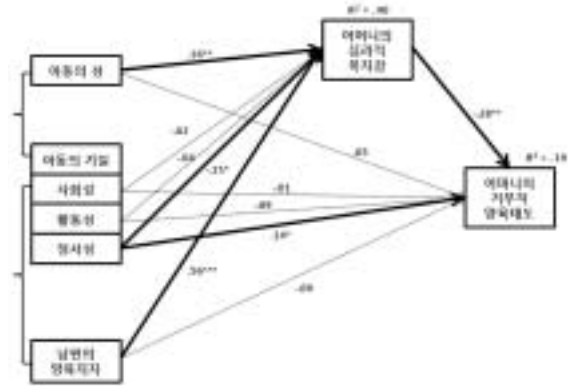
변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B	β	B	β	B	β
아동의 성	-.05	-.04	.06	.05	.00	.00
아동의 기질						
사회성	-.01	-.01	-.01	-.01	-.07	-.09
활동성	.06	.06	-.08	-.09	.09	.10
정서성	.19	.23**	.11	.14*	-.13	-.18*
남편의 양육지지	.09	.09	-.09	-.09	.16	.16*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53	-.34***	-.40	-.28**	.37	.26**
F	7.45***		7.97***		9.54***	
df	6,207		6,207		6,207	
R ²	.18		.19		.22	

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 1 = 여
*p < .05. **p < .01. ***p < .001.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아, 1 = 여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아, 1 = 여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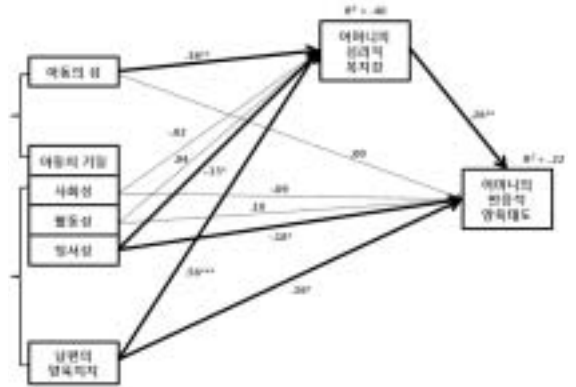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 기질은 직접적 경로나 간접적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사회성 및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한편 〈표 2〉와 〈표 3〉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그 경로를 표시한 〈그림 2〉를 보면,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성 및 정서성,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의 성과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은 직접적·간접적 그 어느 경로도 유의하지 않아 아동의 사회성 및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표 2〉와 〈표 3〉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그 경로를 표시한 〈그림 3〉을 보면, 아동의 성 및 정서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

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정서성 기질이 반응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흥미롭게도 남편의 양육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부적 또는 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반응적 태도의 경우는 남편의 양육지지가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동의 정서성과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반응적 양육태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 기질은 그 어느 경로도 유의하지 않아 아동의 사회성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아, 1 = 여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5〉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인들의 효과분석(β)

(N = 214)

독립변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직접효과	통제적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거부적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반응적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의 성	-	-.05	-.05	-	-.04	-.04	-	.04	.04
아동의 기질	-	-	-	-	-	-	-	-	-
사회성	-	-	-	-	-	-	-	-	-
활동성	.23	.05	.28	.14	.04	.18	-.18	-.04	-.22
정서성	-	-.19	-.19	-	-.16	-.16	.16	.15	.31
남편의 양육지지	-	-	-.34	-.28	-	-.28	.26	-	.26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	-	-.34	-.28	-	-.28	.26	-	.26

및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인들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으로 나타나(각각 $\beta = -.34$; $\beta = -.28$)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통제적 양육태도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았다. 한편,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에 직접효과(각각 $\beta = .23$; $\beta = .14$)와 함께 간접효과(각각 $\beta = .05$; $\beta = .04$)도 나타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다음으로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각각 $\beta = .28$; $\beta = .18$). 그 다음으로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각각 $\beta = -.19$; $\beta = -.16$).

한편,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양육지지로($\beta = .31$), 직접효과($\beta = .16$)와 함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한 간접효과($\beta = .15$)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직접적으로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beta = .26$). 이외에도 아동의 정서성은 직접효과($\beta = -.18$)와 함께 간접효과($\beta = -.04$)를 나타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끝으로 아동의 성은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양육태도 모두에 대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여아를 가진 어머니는 심리적인 복지감이 높아 걸음마기 여아에게 보다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걸음마기 아동의 성과 기질, 남편의 양

육지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걸음마기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 아동의 성은 그 어떠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안지영과 박성연(2002), 신영아(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 자녀나 두 자녀 가정이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아동의 성별 구분 없이 자녀에게 비슷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인 18개월~36개월의 걸음마기 영아는 발달 단계상 남아와 여아에 대해 각각 다르게 대하는 성유형화된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시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양육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남아와 여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나 해석은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동의 성으로 나타나 어머니는 여아에게 더 과보호한다는 연구결과(박성연, Rubin, 2008)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후 제시할 경로분석 결과에서도 시사되듯이, 적어도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보다는 심리적 복지감이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 등 제 3의 변인에 의해 중재된다고 잠정적인 결론은 내릴 수 있다.

한편, 남녀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특히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어,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을 때 통제적 또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았고 반응적 양육태도는 낮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정서성이 까다로운 기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때, 이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에게 통제적, 거부적, 또는 비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임희수, 1994; Lee & Bates, 1985; Van

den Boom & Hoeksma, 1994)을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아의 경우는 사회성이나 활동성 기질이 높을 때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낮았던 반면에, 남아의 경우는 이러한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는 무관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성과 무관하게 어머니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특성은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양육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통제 및 거부적 양육태도를 덜 보였고, 반응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는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선행연구(박성연, 임희수, 2000)를 지지한다. 또한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덜 긍정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많은 연구결과들(Belsky et al., 1996; Olweus, 1980; Wolfe, Foster, & Waugh, 1987)과 유사하다. 따라서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아동의 성은 어머니의 통제, 거부 및 반응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통제, 거부 및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딸일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고 그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 및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았으며, 반응적 양육태도는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태도간에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났지만 남아의 경우는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박서영과 박성연(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Rutter(1970)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이는 여아에 비해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내며 이것은 부모-자녀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아는 부모의 감정에 민감해서 부모의 우울이나 짜증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피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남아 또는 여아에게 나타내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 자체보다는 심리적 복지감과 같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부모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와 양육방식을 취하기 때문에(곽혜경 외, 2005; 곽혜경, 조복희, 1999; 이경남, 2001) 아동의 성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며 이에 따라 양육태도도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유일하게 어

머니의 통제, 거부 및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여 아동의 정서성은 어머니의 통제, 거부 및 반응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어머니의 통제, 거부 및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는 아동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 등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통제적이거나 거부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한편, 반응적 양육태도는 덜 나타냈다. 또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어머니가 통제적인 행동이나 거부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하는 한편, 반응적인 행동태도를 덜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한 우울한 부모들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Belsky & Pensky, 1990), 부모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에게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전수연(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물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통제적 양육태도나 거부적 양육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의 양육지지가 높을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 통제적인 행동이나 거부적인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양육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남편의 협력이 낮으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떨어져 아들에게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신숙재(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남편의 양육도움이 어머니의 거부, 통제 및 반응적인 양육태도 등 대부분의 양육태도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변인이었던 박성연과 고은주(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의 경우는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태도에 남편의 양육지지가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즉, 남편의 높은 양육지지는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이끌게 될 뿐 아니라, 어머니로 하여금 높은 심리적 복지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지지만 남편이 부모로서 어머니와 대화하고 지원해주며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어머니와 일치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Abidin(1994)의 모델에서 제안되었듯이 남편이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내를 돕고 양육에 대한 의견

이 일치되는 정도인 부부간 양육협력(parental alliance)은 특히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태도나 심리적 복지감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남편과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적인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 자연스럽게 남편의 도움을 더 기대할 것이며,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매개로 또는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전반적으로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경우 어머니는 걸음마기 아동에게 통제적 또는 거부적 양육태도를 덜 보이는 한편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특히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통제적 태도나 거부적 태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설명적 양육태도 및 자율성 촉진 양육태도를 많이 보였다는 연구결과(박서영, 박성연, 2007)를 뒷받침한다.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선행연구가 적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 때 어머니의 정서적 또는 인성적 특성이 안정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직접적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어머니의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의 성이나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어머니의 통제적, 거부적 태도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반응적 양육태도의 경우는 남편의 양육지지가 직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따라서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며, 그 다음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남편의 양육지지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는 남편의 양육지지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자기보고 자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과 사회적인 바람직성으로 인한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상관관계에 기초한 본연구결과는 인과적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과 함께 심리적 복지감의 매개역할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구변인들간의 복합적인 영향력은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걸음마기 아동의 정서성 및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남편의 양육지지 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정교화된 개념인 부부간 협력적인 양육행동(coparenting)의 영향을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걸음마기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양육부담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라는 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과 남편의 양육지지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참고문헌

- 곽혜경, 김압이, 장미자, 한유미(2005). 3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통제책략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1, 259-282.
- 곽혜경,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고은주(2003). 보육경험과 아동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서영(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서영, 박성연(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29-51.
- 박성연, 고은주(2003).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 박성연, 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성연,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박성연, Rubin, K.(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영아(2007).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아동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요구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유명희, 박성연(1992). 유명희, 박성연(1992).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2(2), 173-191.
- 이경남(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내외통계 소재와 또래괴롭힘의 관계. **대학원논문집(동아대학교)**, 26, 317-331.
- 이미정(1997).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희수(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수연(2002).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 행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현(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아동교육**, 10(1), 133-146.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Abidin, R.(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 Abidin,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hess.
- Abidin, R.(1992). The determinate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Baumrind, D.(1967). Child cu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lsky, J. E.(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Pensky, E.(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Oxford, 193-217.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1996). Trouble in the second year: Three questions about family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7, 556-578.
- Biringen, Z., Emde, R. N., Brown, D., Lowe, L., Myer, S., & Nelson, D.(1999). Emotional availability and emotion communication in naturalistic mother-infant interaction: Evidence for gend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4, 463-478.
- Bornstein, M. H.(2002). *Handbook of parenting*. In M. H. Bornstein(2nd Ed.). Parenting infants(Vol.1, pp. 3-43).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Crnic, K. A., & Low, C.(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Vol. 5, pp.243-267).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ockenberg, S.(1987). An interac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infant temperament, maternal caregiving, and behavioral outcom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 Dumas, J. E., & LaFreniere, P. J.(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Hemphill, S., & Sanson, A.(2000). Relations between toddler and preschoo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in a Australian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16th Bienn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Beijing, China, July.
- Kochanska, G.(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 94-112.

- Leaper, C.(2002). Parenting girls and boy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Vol. 1, pp.189-226).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C. L., & Bates, J. E.(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Luster, T., & Okagaki, L.(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 Maccoby, E. E.(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Olweus(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64-660.
- Park, S. Y., Belsky, J., Crnic, K., & Putnam, S.(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Pavot, W., & Diener, E.(1993). A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Rohner, R.(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icut Press.
- Rubin, K. H., Cheah, C. S. L., & Fox, N. A.(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the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97-115.
- Rubin, K. H., & Stewart, S. L.(1996). Social withdrawal and inhibition in childhood. In E. Mash & Barkley(Eds.), *Child Psychopathology*(pp. 277-307). New York: Guilford Press.
- Rutter, M.(1970). Psychological Development: Predictions from Infancy. *J Child Psychol Psychiat, 11*(1). 49-62.
- Ryff, C., & Keyes, C.(1995). The Structur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now, C. W.(1998). *Infant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Van den Boom, D. C., & Hoeksma, J. B.(1994). The Effect of Infant Irritability on Mother-Infant Interaction: A Growth-Curve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581-590.
- Weinberg, M. K., Tronick, E. Z., Cohn, J. F., & Olson, K. L.(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75-188.
- Wolfe, V., Foster, S., & Waugh, C.(1987, April). Paternal and marital factors related to child conduct problem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MD.

접 수 일 : 2009년 7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8일